

# 역사의 현장에서 새기는 4·3 문화운동 초심

제주민예총 4·3예술축전 세 차례 찾아가는 예술계 이달 25일은 궤펜이오름 5월 15일 대정고을 찾고 6월 5일엔 이덕구산전서

돌아온 코로나19의 봄에 그날의 현장으로 찾아가는 '4·3항쟁 73주년' 4·3예술축전을 준비했다. 올해 4·3예술축전은 28회째를 맞는다. 무대를 중심으로 펼쳐온 축전 방식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바꾸면서 이달 25일부터 6월 5일까지 '4월의 봄, 다시 역사 앞에 서다'란 표어 아래 세 차례 현장 예술제를 이어 간다. "특별법 개정은 미완의 진실, 4·3의 역사적 정명을 위한 하나의 시작"이라는 제주민예총은 그 현장에서 여러 빛깔 퍼포먼스로 잊혀지지 않도록 하는 이념, 기억되지 않는 전쟁의 함성을 끄집어내려 한다. 특히 올해는 '신축항쟁' 120주년이 되는 때여서 '4·3항쟁'까지 이어져

오는 제주 민중들의 저항과 항쟁의 의미를 기억하고 새롭게 인식하는 자리를 만들 예정이다. 첫 일정인 이달 25일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궤펜이(산란이)오름 예술제를 갖는다. '진달래꽃 타올라'라는 이름을 붙인 이날 예술제는 4·3 당시 유격대라고 할 수 있는 산사람들이 주로 활동했던 궤펜이오름에서 순례길 걷기와 '해방의 몸짓, 치유의 소리' 공연을 선보인다. 5월 15일엔 '이실 재 지킬 수' 대정고을 예술제가 개최된다. 신축항쟁 당시 장두의 탄생과 출생식이 이뤄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에서 신축항쟁부터 4·3까지 이어져 오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며 출정 퍼포먼

스와 마당극을 선보인다. 6월 5일은 산전 예술제 '덕구덕구 이덕구'가 열린다. 이때는 이덕구산전으로 알려진 북반진밭에서 산에 올랐던 산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현장 예술제가 끝난 뒤에는 4·3아카이브전을 계획하고 있다. 9월~10월 탐라사진가협회를 중심으로 73년 동안의 4·3의 흔적을 사진으로 재조명한다. 현장 예술제는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이달 25일 예술제 참가 신청은 온라인 링크(https://lrl.kr/Fpg)를 이용하면 된다. 모든 행사는 영상으로 제작해 제주민예총 공식 유튜브에 공개한다. 문의 758-0331. 전선희기자



김산의 '여명' (정지에 먹, 안료, 아크릴, 2016).

## 4월이 가도 기억해야 할 그 봄날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 제주 활동 청년 작가 5인 생과 사로 살핀 제주4·3

청년 작가들이 바라본 제주4·3을 펼쳐놓는 미술전이 열리고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기획전으로 이달 21일부터 시작된 '다시 돌아, 그린 봄' 전시다. 이 전시는 동시대를 공유하는 청년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4·3의 아픔을 들여다보고 화해와 상생을 기원하는 취지에서 기획했다. 제주 출신 조기섭, 김산, 손유진 작가와 제주에 정착해 활동하고 있는 박정근, 안세현 작가 등 5인이 참여했다. 박정근 작가는 가려지고 묻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 작업으로 전하고 있다. 부부 시리즈를 통해 4·3의 무게에 짓눌린 피해자의 측면만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다층적 사연을 끄집어냈다. 심경(心景)을 그리는 작가 조기섭은 켜켜이 쌓인 시간이라는 토양 위에서 역사와 마주한다. 자기 반성, 수행을 통한 바람의 길을 형상화한

'오체투지'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화원의 통로가 있다. 지인의 죽음을 통해 '애도'가 남겨진 나의 '생'에 대한 일임을 깨달았다는 안세현 작가는 생과 사, 소멸과 생성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상의 세계를 풀어놓았다. 앞의 흔적들이 훗날 뒤떨어지더라도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기억하는 것이 남은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손유진 작가는 까마귀, 유독 등으로 4·3을 표현했다. 기억하는 존재는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나 그 기억들은 존재한다. 김산 작가에게 제주의 풍경은 그저 아름다운 대상이 아니다. 역사와 문화, 제주 사람들의 삶이 녹아 있는 사회적 풍경이다. 거센 비바람에 몸을 맡기며 살아온 폭낭이 굴곡진 세월을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다. 전시는 6월 30일까지 계속된다. 관람은 홈페이지(www.ipcjeju.com)나 전화(735-6561)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시간당 30명 이내 인원만 입장 가능하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멈춤의 시간 속 일상을 상상하다

김춘숙 개인전 설문대센터 자연이 준 선물과 치유 담아

그는 "멈춤의 시간 속에서 자동차 여행을 떠났다"고 했다. 그 길에서 만난 풍경은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제주가톨릭미술가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춘숙 작가가 그 여정을 그림들로 풀어낸다. 이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는 '자연에서 치유되다'란 제목의 개인전을 통해서다.

이번 전시에는 차창 밖에서 안겨왔던 자연의 선물이 펼쳐진다. '별들의 노래', '오름길에서 만난 역사', '멈춤의 시간', '한라 이야기' 등이다. 갑염병 바이러스로 인해 몸과 마음이 흔들리는 때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산과 바다, 나무들을 보며 어느새 그것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작가는 화면 안에 그 평온한 기운을 담았다. 그는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며 그것들과 함께 치유의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며 전시장을 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춘숙의 '한라 이야기'.

전시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개방한다. 연락처 710-4245. 전선희기자

## 문화가 쏙지

꿈바당 학부모 독서회 운영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이 문태준 시인과 함께하는 '꿈바당 학부모 독서회'를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5월 8일부터 7월 24일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볼 수 있게 되었다' (안도현), '길 잃은 새' (타고르), '꽃으로 엮은 방패' (곽재구), '우리가 함께 장마를 볼 수도 있겠습니까' (박준), '질문의 책' (파블로 네루다), '호모 마스크스' (김수열) 등을 함께 읽고 토론, 짧은 글쓰기와 합평 등이 이뤄진다. 모집 인원은 12명이다. 꿈바당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 참조.

전국청소년 4·3문제공모

제주4·3평화재단이 4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제22회 전국청소년 4·3문제공모를 벌인다. 올해는 초등 부문까지 응모 분야를 확대했다. 초등 부문은 시, 산문, 그림을 공모하고 중·고등 부문은 시, 산문, 만화 작품을 접수 받는다. 4·3의 교훈, 평화·인권 관련 주제를 담은 작품으로 국내, 해외 거주 교포 중에서 중·고등학교 재학생 (대안학교, 학교밖청소년 포함)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작은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단 초등 그림 부문은 8월 30일 전후에 발표된다.

도박물관 진로 탐구 교실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은 5월부터 도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 탐구 교실 '꿈꾸는 박물관'을 운영한다. '꿈꾸는 박물관'은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 박물관을 움직이는 전문가를 알아보는 교육으로 박물관 특성에 맞게 준비된 진로 프로그램이다. 참가 대상은 도내 중·고교 단체 또는 동아리로 상반기(5-6월)엔 민속학자 과정, 하반기(9월)엔 곤충학자 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이달 30일까지 두 개 과정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올라 있다. 문의 710-7698.

어울림마당 모니터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청청소년활동진흥센터가 청소년어울림마당 모니터링단을 운영한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문화예술, 스포츠 등을 소재로 한 공연, 경연, 전시, 놀이 등 문화체험이 펼쳐지는 장이다. 모니터링단은 현장에서 이용자 반응을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을 제안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집 대상은 대학교 2학년 이상 청소년, 학부모, 자원봉사자, 청소년전문가 등 10명 내외다. 접수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서류 심사를 통해 모니터링단원을 선발한다. 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 1시간 온전히 책 읽기 '꿀독서대회'

책 읽기의 즐거움과 몰입 독서의 경험을 나누는 행사가 있다. 제주시 구좌읍 총달리에 있는 동네책방인 책자국에서 열리는 '책자국 꿀독서대회'다. 이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한국서점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2021 심야책방' 프로그램으로 마련됐다. 불거리, 즐길거리가 넘쳐 온전히 독서 행위에 집중하기 힘든 시대에 한 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책을 읽기만 하면 선물이 주어진다. 지난해 여름에도 '제주책방예술제' 프로그램으로 독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다.

이번 행사는 이달 30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1시간 동안 휴대폰 사용, 잡담, 놀기, 명 때리기 등이 엄격히 금지되고 3초 이상 앉은 자리에서 엉덩이를 떼어도 안 된다. 이 시간에 읽은 책은 직접 가져오거나 책자국에서 구입하면 된다. 1시간 동안 꿀독서대회 규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가비는 무료. 참가 신청은 책자국 인스타그램 (@bookimpression\_jeju)이나 전화, 문자(010-3701-1989) 메시지를 이용하면 된다. 전선희기자

# 힘내요! 2021 제주!!

**다시, 우리, 함께!**

마음껏 꿈꾸고, 서로의 희망을 나누며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제주의 미래를 위해 한라일보독자권익위원회가 제주도민을 응원합니다.

**한라일보 창간 32주년을 축하합니다.**

**2021 한라일보 독자권익위원회**

위원장 이 선 화

부위원장 고희언 홍인숙 간 사 신승훈

위 원 강말순 강민숙 강창용 고석찬 고승화 김병수 김순보 김은미 김은정 김주경 문만석 박애순 안재민 오명찬 이병철 이정민 이정훈 이종실